

# 두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성경 민수기 13:21-33

##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은혜의 찬양 21장)

- 1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 2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후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 2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찬송가 504장)

- 1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 2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 3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 말씀 읽기 민수기 13:21-33

- 21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 22 또 네겟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칠 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 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새와 달매가 있었다
- 23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 2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 25 사십 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 26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 27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 28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 29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라
-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 본문 배경

모세는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열두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고 정탐은 4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정탐 중에 헤브론에서 발견한 토착민들은 이스라엘을 놀라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으며, 에스골 골짜기에서 베어 온 포도송이는 성인 남성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와야 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내용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는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과일을 보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점차 부정적인 보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28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낙 자손은 고대 거인족이라 불리는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겨진 신장이 크고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탐꾼 갈렙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30절)라고

선포했으나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땅 거주민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깊은 비애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잇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든 누가 방해할 한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취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 말씀 관찰

#### 1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33절)

답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해설 열 명의 정탐꾼이 쏟아낸 말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었기에 그곳은 강해 보였습니다. 너무 견고하고 커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판단한 결과 가나안은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약속을 믿지 못하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만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 2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30-31절)

답 능히 이길 수 있다며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해설 열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하자 함께 정탐을 갔던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다른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갈렙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 말씀 적용

1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일은 무엇인지 가족과 나눠 주세요.

2 두려워하고 걱정스런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지 가족과 나눠 주세요.

### 말씀 암송

## 7-4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 = 52

작곡 송세라

F(add2) Dm7 Bb7 C7  
 믿음 이 없 이 는 - 하 나 님 을 기 뽀 시 게 하 지 못 하 나 니

5 F(add2) Dm7 Bb7 Bm7 C7  
 하 나 님 께 나 아 - 가 는 자 는 반 드 시 그 가 계 신 것 과 또

9 F Dm7 Gm7 C7 F Dm7 Gm7 C7  
 한 그 가 자 기 를 찾 는 자 들 에 게 상 주 시 는 이 심 을

13 Bb7 C7 F Dm7 Bb7 C7 F  
 믿 어 야 할 지 니 라 - 믿 어 야 할 지 니 라 -

17 F(add2) Dm7 Gm7 C7 F  
 히 브 리 서 십 일 장 육 절 말 씀 아 멘



###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용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